

미아리고개공원 설계

김도경

경희대학교 디자인연구원

Design of Miarigogae-park

Kim, Do-Kyong

Design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In 1994, Songbuk-gu Office of Seoul held a design competition for Miarigogae-Park. Miarigogae has a special sense of place. It was a place where barbarians had crossed the boundary to this country during the Manchu war of 1636. It was a public cemetery where only Koreans had been burie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t was a place where national patriots had been kidnapped to the North during the Korean War. It's sorrows have been sung in the name of song—'Danjangeui-Miarigogae' (one of the most popular song in Korea). It's sense of place has been kept in every Korean people's mind in the form of 'non-physical image'.

Even though, the site itself was a small space—only 1000m², the meaning of park-making was very significant. It meant that it would create a physical 'setting' to express the sense of place which has been existed only in our mind as a form of 'non-physical image'. In the winning scheme proposed by the author, the sense of place of Miarigogae was expressed in the form of 'castle walls' which could be easily come into everyone's mind as an image of war. The scope of work also included a crossing bridge and symbolic features. It was meaningful that a landscape architect won the competition including on those items which were not usually handled in pure landscape architectural offi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rticulate the concept of the winning entry in detail and to describe how the concept actualized in reality.

Key Words : Miarigogae-park, sense of place, non-physical image, park-making, physical setting

I 서론

1994년 성북구는 관내 미아로 확장공사를 계기로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긴 한 많은 미아리고개를 역사의 현장으로 재조명하고 주변공간을 가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미아리고개 주변에 특징 있는 경관 창출을 위한 미아리고개공원조성현상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1996년 준공 후 성북구의 새로운 상징물로서 그리고 지역주민 및 통과 보행자들에게는 특색 있는 가로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본 작품에 대하여 당선작을 제출하였던 필자는 계획안과 준공 후의 모습을 중심으로 계획안의 도출과정과 계획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을 설계자의 입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II. 계획의 개요

1. 위치

성북구 돈암동 51-28 주변 및 돈암동 80-16 주변의 미아리 고개 정상부 양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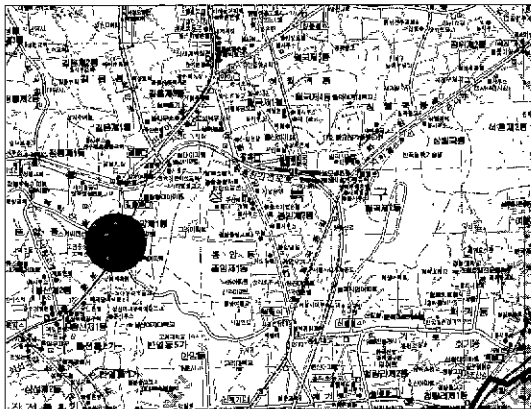


그림 1 위치도

2. 면적

고명상고 측의 약 1,000㎡ (일부 절개지 포함)와 개운산 측 절개지

3. 계획의 내용

- 1) 공원조성 기본계획
- 2) 절개지 법면처리계획
- 3) 횡단교량 계획
- 4) 조형물계획

4. 계획의 목표 (성북구 제시)

- 1) 한 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미아리고개가 갖는 장소성을 재조명하여 후세들에게 교훈의 장소로 제공
- 2)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맞아 민족 화합의 장으로 승화
- 3) 성북구의 새로운 랜드마크(landmark) 조성
- 4) 지역주민 및 통과 보행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공원 제공.

III 현황 분석

1. 지형

고개 정상부에 입지 하여 공간규모가 협소하며 가로공원부지는 선형 형태로 절개지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2. 경관

고갯미투로서 차도 상·하행선의 원거리로부터의 주 시각 대상물은 횡단교량이 될 것이며 근거리에서는 도로양측의 절개지가 주 시각 대상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3. 동선

상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버스, 승용차, 보행자의 교통 혼잡이 상존 하고 있으며 추후 횡단교량이 완공될 시에는 북악산길 진·출입 차량까지 증가하여 보행자 동선의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환경

고개 정상부로 차량으로 인한 매연과, 분진, 소음이 심하며, 현재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주변에 노후화 한 불량건물이 밀집하여 있으나 주변 재개발사업과 도로 확장사업으로 상당한 정비가 예상된다. 도로 확폭과 가로공원 조성으로 여유 있는 보행동선과 녹음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2 개발전 모습(돈암동쪽에서 본 모습)



그림 3 개발전 모습(길음동쪽에서 본 모습)

IV. 기본계획

1. 계획개념

미아리고개는 뚜렷한 장소성을 갖는 특별한 곳이다. 병자호란 때는 오랑캐가 넘어왔던 곳으로, 일제 때는 조선인 전용 공동묘지 구역으로, 6·25전쟁 때는 민족 지사 남북의 현장으로 어둡고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오늘날 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물론 전후 세대들까지도 “斷腸의 미아리 고개”라는 애절한 노랫말이 갖는 민족의 애환을 공감하는 곳이다.

이러한 미아리고개에 대한 국민정서와 뚜렷한 장소성은 비물리적인 ‘心象’으로 온 국민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다.

이러한 특별한 장소에 도로가 확폭되고, 횡단교량이 설치되며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차그마한 가로공원 부지가 할애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추상적이며,

비물리적인 心象으로만 존재하는 장소성을 형상화하여 시각적이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에 담겨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횡단교량의 형태, 가로공원, 상징조형물, 절개지등의 모든 환경요소들은 전쟁과 外侵에 얽힌 과거의 슬픈 역사를 극복하고 통일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형상화 함으로서 성북구의 랜드마크 (land-mark), 나아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역사의 현장으로 이용되고 기억 되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형상화 작업은 도로 양측 절개지를, 성북구 휘장에 담겨져 있고(그림4 참조) 시민 누구나 쉽게 떠올릴수 있는 전쟁의 이미지 중 하나인 ‘城郭’ (그림5 참조)의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오래된 역사의 흔적이 배어있는 ‘城’을 현대적 構造美를 갖는 날렵하고 심플(simple)한 교량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서 단순한 기능적 교량이 아니라 時間的, 事件的 ‘다리’로서 연결시켰다.

사적비(事蹟碑)는 기존 절개지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무너져 내린 돌더미’에서 솟아난 듯한 ‘비’로 형상화 함으로서 線型的 가로 공원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그림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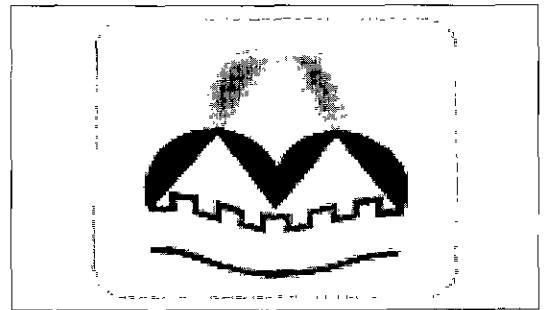


그림 4 성북구 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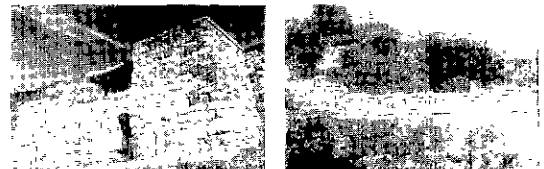


그림 5 성곽이미지 사례

‘노래비’와 ‘浮彫’ 등의 상징 조형물은 ‘城郭’ 및 ‘교량’과 규모(scale)에 있어서 경쟁의 관계가 아닌

조형물 자체의 함축적 의미로서, 전쟁으로 인한 分斷의 슬픈 역사와 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아 성곽 아래의 반 실내공간에 “통일 염원의 場”으로 조성함으로써 협소한 부지에서의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그림10 참조).

2. 공원조성계획

- 입지 특성상 소음, 분진, 매연이 심한 상태이며 도로의 확폭과 횡단교량이 완성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쾌적한 보행공간이 필요하다 하겠다.
- 도로 양측으로 대규모 절개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선형으로 조성될 가로 공원은 협소하며 폐쇄감이 강한 지역으로 고밀도의 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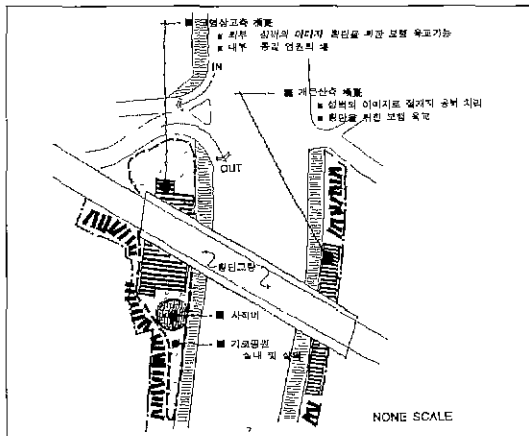


그림 6.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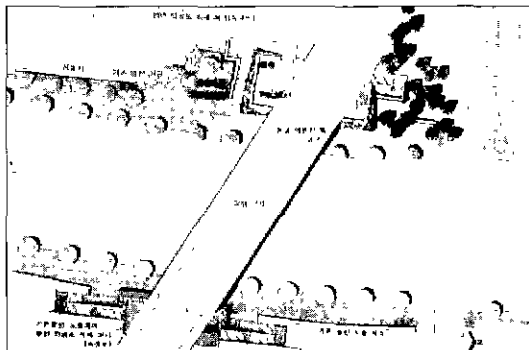


그림 7. 공원조성계획도

3. 절개지 법면처리계획

절개지의 암반 노출 부분은 계획의 제한적 요소가 아닌, 주 경관 대상으로서 랜드마크 (land-mark)적인 요소로 해석하여 성북구 휘장에 담겨져 있고 시민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전쟁의 이미지 중 하나인 ‘城郭’의 형태로 표현하여 교량과 절개지 법면과의 직접적인 연결에서 오는 부조화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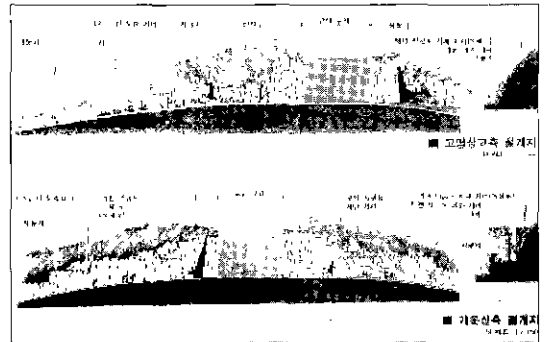


그림 8. 절개지 법면처리 계획도

4. 횡단교량계획

교량 및 橋臺(교대) 자체가 분단, 아픔, 통일의 이미지를 담아 장소성을 강조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하여 랜드마크(landmark)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그 재질과 형태는 전통과 현대성이 어우러지도록 하며, 분단된 현실을 초월하여 통일된 미래를 향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교량의 색채는 성북구 휘장의 주 색채인 청색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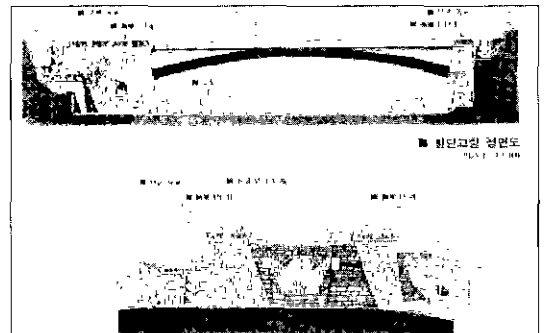


그림 9. 횡단교량 계획도

5. 상징조형물계획

1) 통일 염원의 장

본 상징조형물은 주변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적 역할을 하게 될 상당한 규모의 성곽과 교량에 비교하여 경쟁적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조형물 자체의 함축적 의미로 전쟁과 분단의 사무친 슬픈 역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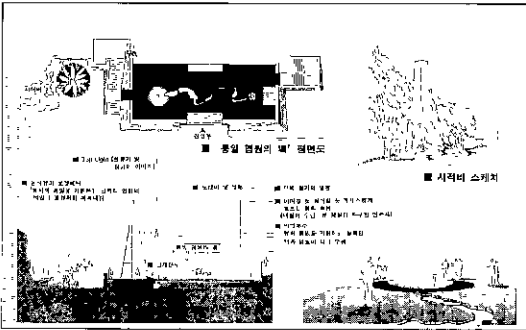


그림 10 "통일염원의 장" - 초기안
규모 : 실내폭8m × 길이21m × 높이5~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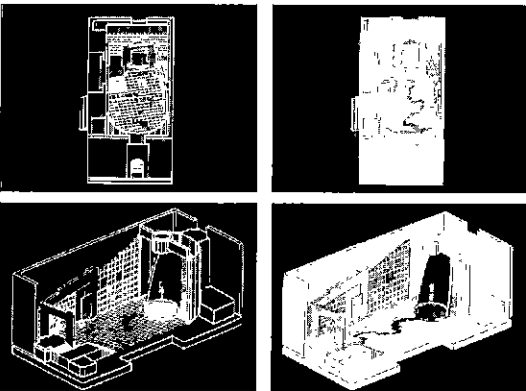


그림 11. "통일염원의 장" - 발전안(컴퓨터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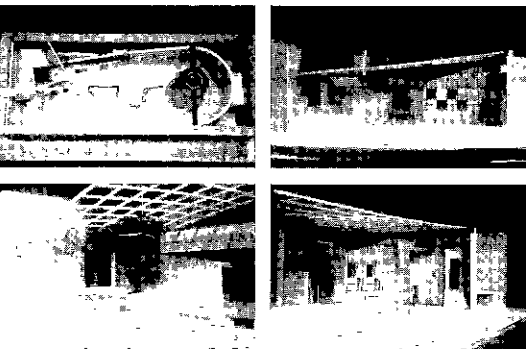


그림 12 "통일염원의 장" - 발전안(모델 스터디)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룩할 민족 통일에 대한 염원을 성곽 내부 반 실내공간에 표현함으로써 내방객들의 휴식, 교화 및 담소의 장소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반 실내공간이 주는 '~안' 혹은 '~속'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이용하여 슬픈 분단의 역사를 농축된 內在的 염원으로 표현하기 위한 공간적 세팅(setting)으로 발전시켜 보았다.

즉, 단절과 수난으로 점철된 유구한 민족사를 이어질 듯 끊어질 듯한 자유 곡선의 물 흐름으로 형상화시켜 보았으며, 천정 부분에서 인공조명을 적절히 연출한 탑 라이트(top light)에서 한줄기 뻗어나온 강렬한 빛은 광명의 이미지를 그리고 기단에 자리잡은 안개분수와 동심원의 포장 패턴은 신비하고 성스러운 민족의 평화와 통일 염원에 대한 농축된 민족적 염원의 바람이 물결처럼 퍼져 나가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미아리고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미아리고개에 얽힌 슬픈 분단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의 장소요, 성곽 위로부터 민족통일을 향해 끊임없이 발전되어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염원의 장소가 될 것이다.

2) 사적비(事蹟碑)

(1) 초기안

반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통일 염원의 장'과는 별도로 사적비는 미아리고개를 지나쳐 가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쉽게 보여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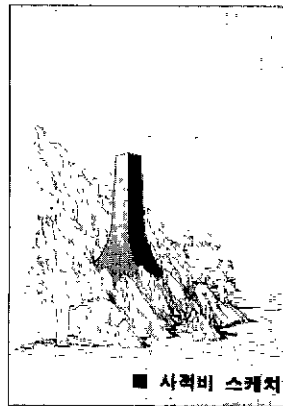


그림 13. 사적비 초기안

성벽으로 처리될 기존암반의 한 부분을 마치 전쟁의 상흔으로 '무너져내린' 돌더미처럼 자연스럽게 처리하여 기단, 부조형물, 배경요소로 활용하며, 이 '무너져내린' 돌더미와는 대조적으로 장소가 갖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비문이 음각으로 새겨진, 조형적으로 정돈된 이미

지의 '미아리 고개비'가 주위의 성곽등과 어울리게 설치될 것이다.

(2) 발전안

현상공모 당선 후 정밀조사에서 기존의 암반이 조형적으로 다듬을 정도의 경도가 아니어서 새로운 개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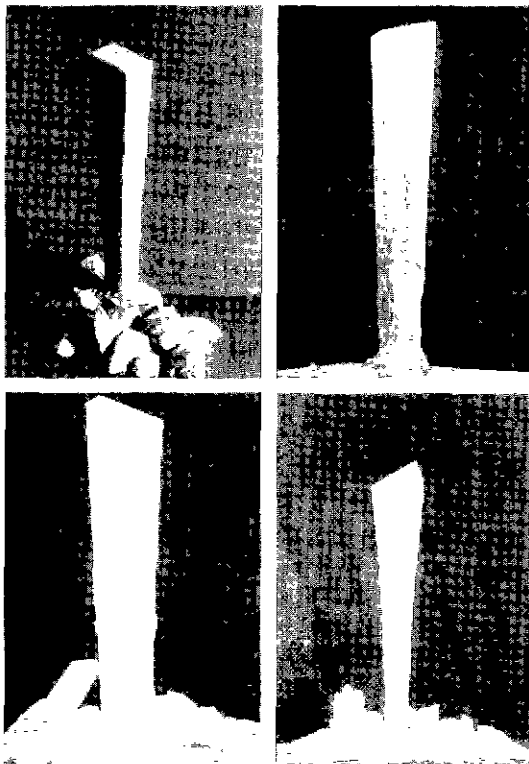


그림 14. 사적비 대안스터디



그림 15. 사적비 최종모델
규모 높이 5m 재질 : 오석

그림 16. 사적비 준공후 모습

로 접근할수 밖에 없었다. 사적비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라는 직육면체의 형태에서 출발하였으나 역삼각형의 구조로서 형상화함으로 안정된 느낌보다는 '불편함' 내지는 불안정성을 강조하여 슬픈 과거의 역사를 환기시켜 보려고 하였으며 직육면체의 형태가 아닌 비틀어진 형태로 처리함으로써 단순한 조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과거의 의미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을 형상화하도록 한다.

재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오석을 사용하나. 하단부에서는 역사적 아픔 내지는 '어떤' 연원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듯하게 정으로 타치해서 희게 처리하며 상단부에서는 '비' 자체의 정돈된 이미지의 검은색 돌을 물갈기 마감으로 처리함으로써 하나의 결정체로서 정리하도록 하였다

3) 노래비 및 부조

(1) 노래비

노래비는 '통일염원의 장' 입구 맞은 편 벽에 세워짐으로써 미아리고개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글씨는 천공가공하여 뒤쪽에서 빛을 비추도록 하였다(그림 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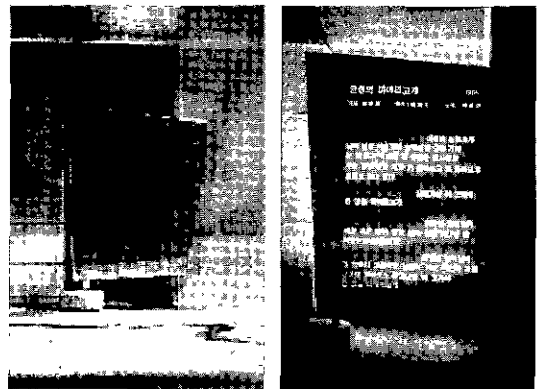


그림 17 노래비-스터디모델 그림 18. 노래비-시공후

규모 · 2.1×2.8m 재질 : THK10동판 글씨 · 천공가공

(2) 부조

부조벽은 자체의 표면을 부조처리하여 조형요소가 되도록 하며, 그 형태는 소중한 부분을 감싸는 형태로 여타의 조형요소를 강조하도록 하며 인접한 출입구로부터의 자연 채광을 조절하는 기능도 겸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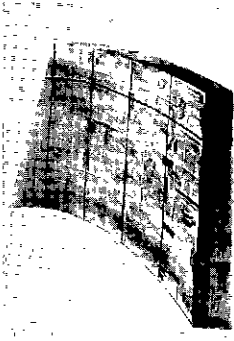


그림 19. 부조-초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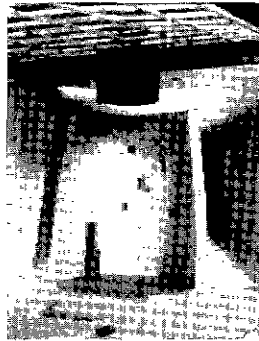


그림 20. 부조-발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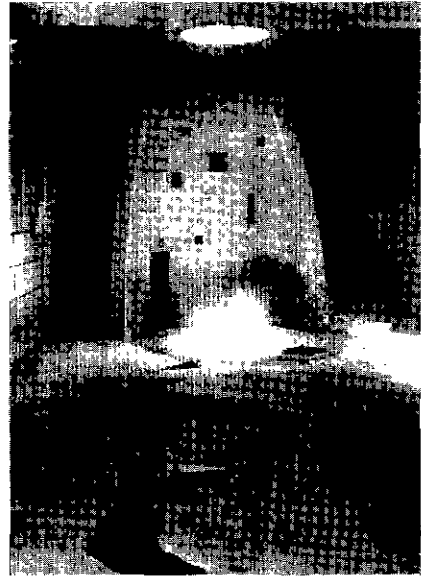


그림 23 '통일염원의 장' 준공 후 전경
- 부조, 수로, 안개분수, top light



그림 21 초기안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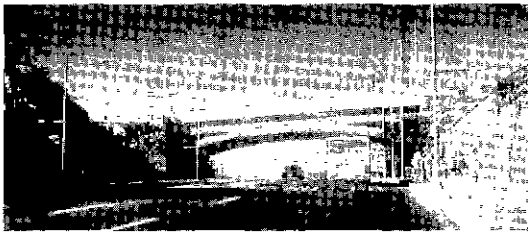


그림 22. 준공 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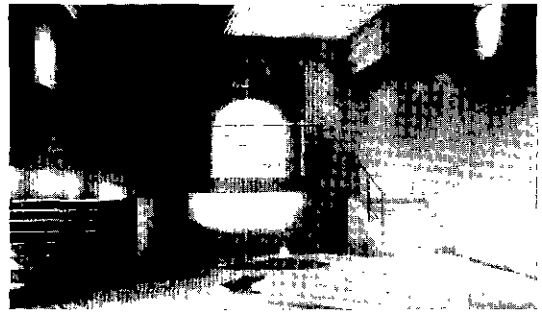


그림 24. '통일염원의 장' 준공 후 전경
(그림 23의 반대편 쪽)

V. 맺음말

필자는 조경설계(디자인)라는 것을 결국은 주어진 부지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설계가 나름대로의 답변이라고 정의한다. '미아리고개공원' 현상공모 제출안에서 '단장의 미아리고개' 라는 애절한 노랫말로 표현되는 미아리고개의 장소성, 즉 추상적이며 비물리적인 心象으로만 존재하는 장소성을 성북구 회장에 담겨져 있고 시민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전쟁의 이미지중 하나인 성곽의 형태로 형상화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부지가 갖고 있는 절계지라는 물리적 조건이 있었지만.

본 계획안의 작품적 가치를 떠나 횡단교량 및 상징 조형물(반실내공간인 통일염원의 장을 포함하여) 계획 등 순수 조경에서 그 동안 흔히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주가 되는 본 현상공모에서 조경설계가 주도한 안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의미 있다하겠다 초기 계획안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집행과 공사와 정에서 조금씩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설계가로서 초기안의 내용을 최대한 현실화시키고자 하였다.